

본문	신 5:12-15	제목	참된 안식의 의미
찬송		일시	2026. . . .
<p>왜 우리 기독교는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음도 쉽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p> <p>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보다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 갈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 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며, 사람은 창조주가 아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p> <p>신명기 안식일 계명은 구속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5).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즉, 너희는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p> <p>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렘 31: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 즉 교회도, 계명도, 가정도, 기업도은 하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이라 함은 분리를 뜻합니다. 주일은 세상과 분리된 날입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구속질서를 따라 감사하며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모든 일(콜 멜라크테카)’에서 ‘일’을 의미하는 ‘멜라카(מְלָכָה)’는 에게 사명을 주어 파견하다’는 뜻이 있는 ‘말르야크(מַלְאָכָה)’와 동일한 어원을 갖는 단어로서 에게 명해진 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깃들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힘써 일을 한다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3. 참된 안식은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15절). <p>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쉼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드릴 때 안식이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세상의 그 어떤 복 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 구원받은 복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됩니다.</p>			
<적용>			
<기도>			